

진로강습

国立オリンピック記念
青少年総合センター
2011/11/28~11/30

11월 28일부터 30일에 걸쳐 진로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.
2일간의 강습은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하시는 강사선생님들께서 강의, 좌담회와 동무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진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마당이 되었습니다.



2반 문주나학생의 감상

... 2일째 좌담회에서 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가장 느낀것은 《동포사회를 위하여 산다》는 말의 인상이 달라졌습니다. 세 선생님처럼 어디에 가도 무슨 직업을 해도 굳은 《축》을 세우면 얼마라도 동포사회에는 이바지할수 있다고 알수 있었습니다

5반 정광현학생의 감상

나는 이번 진로강습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생각을 깊일수 있었고 이 3일간으로 반동무들과 자기 속심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습니다. 이번 강습에서 강의와 좌담회를 통해서 이제까지 멍하니 생각하고있었던 진로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이전보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활해나가겠습니다

